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al beliefs and their child-rearing behaviors

목원대학교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김수연*

Dept. of Preschool Education, Mokwon University
Full-time instructor : Kim, Suyeon

Abstract

The study is to investigate mothers' parental beliefs about child development and the children's developmental tasks, and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parental beliefs and child-rearing behaviors. The subjects are 113 pairs of 4- to 5-year-old children and their mothers. For measuring maternal beliefs about child-development, 'beliefs about development scale' and 'child-rearing beliefs scales' were used. For 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child rearing behavior observation scale' was used. The main results were: first, mothers value the cognitive theory and 'autonomous behavior' higher than 'conforming behavior' in developing their children. Second,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mother's parenting beliefs in the factors of 'gender of their children' and 'maternal job status', while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aternal beliefs according to the levels of mother's education and family income. Third, sub-scales of their parenting beliefs were correlated with interactive behaviors between them and their children. The more mothers put importance on cognitive theory and children's autonomous behaviors, the more their supportive child-rearing behaviors during child-mother task solving situations were showed.

Key Words : parental beliefs, child-rearing behaviors, mother, young child

I. 서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맺게 되는 부모 또는 주 양육자와의 사회적 관계에서 출발하여 성장하면서 수많은 관계를 맺고 성장 발달해간다. 최초의 사회적 관계는 가정에서 시작되며 유아는 어머니 또는 주 양육자와의 애착관계에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아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사회적 가치와 태도, 지식은 양육자의 관점을 통해 선택되어 유아에게 전달되게 된다.

최근에는 부모의 행동이나 아동발달의 근원을 규명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지향하는 신념이나 사고와 같은 인지적 요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Goodnow, 1988; Miller, 1988). 따라서 연구자들은 단순히 양육행동 자체를 연구하기보다 부모가 자녀에 대해 어떤 기대와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모의 양육행동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 특히 연구자들은 '부모의 신념'이 '부모의 행동'이라는 개념적 틀(Siegel, 1985) 안에서 부모의 인지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을 연결 짓고 있다. 이를 통해 아동발달에 대한 부모의 가치관이나 구체적인 양육목표나 교육관 등의 인지적 차원으로 구성되는 부모의 신념은 양육행동보다 더 강력하게 자녀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으로 강조되고 있다.

Darling과 Steinberg(1993)는 부모가 지향하는 양육목표와 가치, 신념은 부모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부모의 양육행동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아동에게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실행하는 양육실체는 하나의 중재매락으로서 부모가 가진 양육 목표와 가치, 신념, 태도를 반영해준다고 한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양육행동의 기저에 깔린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심층

* Corresponding author: Suyeon Kim
Tel: 042) 829-7381
E-mail: comkids@lycos.co.kr

적으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설적 상황에 대한 질문지를 사용하여 유아를 둔 부모들의 아동발달 신념을 조사한 연구(이희선, 1995)와 아동발달 이론에 따라 부모의 양육신념을 조사한 연구(안지영, 박성연, 2002) 등이 있을 뿐,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어머니가 실제로 자녀에게 수행하는 양육행동을 관찰하여 그 관계를 탐색한 연구는 드물다.

또한 양육신념을 연구함에 있어서 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한 연구 또한 찾아보기 힘들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자녀의 각 발달시기에서 중시하는 발달과제와 관련하여 구성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유아의 발달적 특성에 따라 조사될 필요가 있다. 유아기의 부모는 유아가 어떤 기술과 능력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가 아동기나 청소년기와 다를 것이며, 자녀가 받아야 하는 교육의 내용에 대한 관점이나 자녀에게 필요한 능력에 대한 관점도 다른 시기와 다를 것이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자녀양육이나 유아교육, 유아의 특성에 대한 포괄적인 신념을 알아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된다.

그런데, 부모의 신념은 사회의 문화 및 가치관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 아동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아동의 특성 중에서 자녀의 성별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기대나 목표가 달라진다는 결과(계몽아동연구소, 1988; Luster & Okagaki, 1993)도 있는 반면에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 신념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고을희, 2001; McGillicuddy-DeLisi, 1985)도 있어 일관되지 않은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직업적 특성, 가구의 소득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경제적 지위는 신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데, 사회경제적 지위의 효과에 대해 연구한 Kohn(1963)은 부모가 처해 있는 환경은 사회가 어떻게 유지, 변화되고 이러한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과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모의 사고를 형성시켜주기 때문에 부모의 신념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Luster & Okagaki, 1993, 재인용). 이후의 연구자들(이원영, 1983; Schaefer & Edgerton, 1985)도 공통적으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에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허용하고 아동 중심적 사고를 가지는 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외부에서 주어진 권위와 기준에 대한 순응성을 강조한다고 보고하였다. 사회경제적 지위의 지표가 되는 요인들 중에서 교육수준은 가장 큰 영향요인이 되는데, 이는 교육이 부모 개인의 가치관과 태도를 형성함에 있어서 중요한 지적인 능력과 융통적인 사고방식 및 관점의 폭을 넓혀주기 때문이다. 부모의 직업은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목표나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경우 아버지보다 취업의 유무나 직업 지위가 자녀양육과의 관계가 더 밀접하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이론적 관점과 실제적 교육관의 두 가지 측면에서 조사하였다. 즉, 유아의 발달적 본질에 관련된 이론적인 관점과 유아기의 발달과제로서 자율성 또는 순응성의 발달을 촉진시키는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어머니의 인식을 통해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러한 어머니의 신념이 아동의 성이나 어머니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구조화된 문제해결 과제 상황을 통해 어머니와 유아간의 상호작용 행동을 관찰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보다 실제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실제 양육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선정하였다.

1.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어떠한가?
 - 1) 어머니의 발달에 대한 이론적 관점과 유아기의 발달과제에 대한 어머니의 양육신념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한가?
 - 2)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유아의 성,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취업유무 및 가정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아동발달이론적 관점에 기초한 양육신념

부모의 신념은 아동양육의 내용에 대한 지식과 방법에 대한 지식으로 구성되는데, 부모의 신념은 변하지 않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다양하고 복잡한 개방된 체계라고 한다. Miller(1988)는 양육신념을 발달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 신념과 아동의 특정 능력의 발달 시기 및 중요성에 대한 신념의 두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발달의 본질에 관한 일반적 신념체계로서, 아동의 발달이 성숙에 의한 것인지, 경험을 통한 학습에 의한 것인지, 아동이 능동적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이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다. 이러한 견해는 학습 이론, 성숙주의, 상호작용적 인지-발달 이론 등 발달 심리학에서 다루어온 고전적인 주제들로써 주로 아동발달

의 본질에 대한 양육신념에 관한 내용을 밝혀준다. 각 발달 이론들은 발달의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해 다른 관점을 제시하며 양육방법에 대해서도 각기 다른 시사점을 주기 때문에 부모가 어떤 이론적 관점에 입각한 양육신념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 양육실제도 달라질 것이다. 성숙주의적 발달이론에서는 자녀의 발달에서 생물학적인 요소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성숙주의 이론에 기초한 신념을 가진 부모는 자녀의 요구를 중시하고 생물학적으로 자연스러운 성장을 중시하게 된다.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아동의 발달에서 외적인 환경의 영향을 가진 큰 발달의 근원으로 보기 때문에 이 관점에 기초한 신념을 가진 부모는 강화나 보상, 체벌의 방법을 통해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의 기대와 요구에 따라 자녀를 엄격하게 행동규제하게 된다. 하지만, 상호작용주의 또는 인지발달 이론에서는 아동의 발달이 아동 자신의 내적인 힘과 환경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인지발달 이론에 기초한 신념을 가진 부모는 자녀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 과정을 중시하며 자녀의 요구와 부모의 통제 사이의 융통적인 균형을 찾고자 노력하게 된다.

둘째는 아동의 특정 능력의 발달시기와 중요성에 대한 양육신념들이다. 이는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의 시기별로 필요한 발달의 과업과 그 과업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양육의 중요성에 대한 부모의 사고를 말한다. Sameroff와 Feil(1985)은 부모의 신념을 범주적 차원과 조망적 차원으로 나누어 살펴본 결과,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조망적 차원에서의 신념을 많이 갖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자녀 관계의 상호작용을 상호 호혜적 관계로 인식하고 있고, 자녀와 자녀양육에 대한 가치관을 복잡하게 변화하는 융통성 있는 체계로 수용한다고 하였다. 사회적 맥락, 부모의 신념, 아동의 수행능력에 관한 Kohn(1979)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외부의 권위에 대한 순응에 가치를 두고 부모들은 아동에게 복종과 훌륭한 태도를 강조하는 반면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스스로 문제를 생각하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자기 지시를 암시하는 특성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희선, 1995, 재인용).

국내 연구를 살펴보면, 어머니의 신념에 대한 연구들은 아동발달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의 신념이나 교육관을 조사한 연구가 있다. 이론적 관점에 따라서 어머니가 생각하는 유아의 발달에 대한 영향력을 조사하거나(안지영, 박성연, 2002; 전인옥, 이경옥, 1999), 교육을 주도하는 주체에 따라 아동중심 교육관과 성인 중심 교육관으로 분류하기(이원영, 1983)도 하였고, 자녀양육행동의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는가에 따라 예언적 관점과 단언적 관점으로 분류한 연구(조혜진, 2001)도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까지 진행된 부모의 신념에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자녀의 인지발달이나 아동 발달 이론과 관련된 부모의 신념을 단편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유아기 부모의 신념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부모의 신념을 이론적 관점과 유아기의 발달과제와 관련된 부모의 양육관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의 관계

부모의 양육목표와 가치, 양육신념은 아동의 발달에 영향을 준다(Jose, Huntsinger, Huntsinger, & Liaw, 2000; Rubin & Mills, 1992). McGillicuddy-De Lisi(1985)는 양육신념이 두 가지 방식으로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첫째, 신념은 부모 행동의 근원이며, 부모의 양육행동은 양육신념과 아동의 발달간을 조정하는 중재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이러한 간접적인 과정을 통하여 신념은 아동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둘째, 양육신념은 아동행동의 결과를 통하여 직접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시 부모의 어떠한 신념이 구체적인 양육행동으로 전달되었는지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연구자들(Okagagi & Sternberg, 1993; Sameroff & Feil, 1985)은 부모 양육의 인지적 측면인 양육신념이 양육태도보다 부모 자신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발달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변인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Sigel(1981)은 부모가 자녀에 대해 자신의 발달을 이끄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경우 자녀의 인지적 사고 수준을 향상시키는 아동양육방법을 사용하지만, 자녀를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양육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Luster와 Rhoades, Hass(1989)는 부모의 가치관에서 부모의 신념이 나오고, 부모의 신념은 자녀를 다루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부모가 아동의 행동 결과에 대해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에 따라 부모가 중요하다고 간주하는 적절한 양육행동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McGillicuddy-De Lisi와 Subramanian(1994)은 미국과 탄자니아 어머니의 부모신념과 5-12세 아동의 발달간의 관계를 비교문화 연구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정체성과 성취를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미국인 어머니와 가족과 집단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적 배경을 가진 탄자니아인 어머니 사이에 양육신념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과 자녀의 발달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즉, 미국인 어머니가 탄자니아인 어머니보다 아동의 능동

적인 인지 능력의 발달을 중시하며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더 크게 느끼고 부모의 상호작용 역할을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에 따라 부모는 아동과의 과제 수행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미국인 어머니들의 자녀가 더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며 창의성이 높았고 지적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가 가진 사회문화적 배경과 가치관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차이가 있으며, 이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행동도 달라지고 자녀의 발달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알게 해 준다.

Johnson(1980)은 아동의 표상능력은 부모의 교수방법 및 신념과 관계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부모의 교수행동보다도 부모가 가진 아동발달에 대한 신념이 아동의 표상능력을 더 잘 예측할 수 있는 변인이라고 주장하였다(Johnson & Martin, 1985, 재인용). Johnson과 Martin(1985)은 인지발달론적 신념을 가진 부모의 자녀는 읽기와 수학적 성취 점수가 높은 경향이 있는 반면, 성숙론적 신념을 가진 부모의 자녀는 학업 성취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Bronfenbrenner(1992)는 부모의 교육수준이 신념에 영향을 미치고 이는 아동발달과 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의 발달에 대한 이론적 관점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달적 과제에 대한 부모의 신념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부모의 교수방법 및 언어적 상호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발달 및 성취와 관련된다고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유아교육기관에 다니는 4-5세 유아와 어머니 113쌍이었다. 대상 유아의 성별 구성은 남아(42.5%)보다 여아(57.5%)가 조금 더 많았고, 4세가 41.6%이고 5세가 58.4%이며, 첫째(65.5%)가 둘째(34.56%)보다 많았다. 부모의 연령은 어머니($m=34.5$ 세)와 아버지($m=36.5$ 세) 대부분이 30대였으며, 어머니(54.9%)와 아버지(54.9%) 모두 대졸이 가장 많았다. 어머니는 대부분 가정주부(57.5%)였고 취업한 경우에는 사무직(29.2%)이 가장 많았으며, 아버지는 사무직(57.5%)이 가장 많았다. 가정의 월수입($M=383.2$ 만원)은 200-300만원 사이(38.1%)가 가장 많았고 300-400만원 사이(25.7%)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2. 연구도구

1) 어머니의 양육신념 척도

① 발달에 대한 이론적 관점 척도

어머니의 양육신념 중에서 발달의 본질에 대한 일반적 신념체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Martin과 Johnson(1992)의 발달에 대한 신념 척도(Beliefs about Development Scale)를 예비조사를 거쳐 번안, 수정하여 발달에 대한 이론적 관점 척도로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아동 발달에 대한 부모의 이론적 관점을 측정하기 위한 28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유아와 관련된 상황에서 아동의 발달적 변화에 대해 세 가지 가능한 설명(학습이론적 관점, 성숙주의적 관점, 인지발달론적 관점) 중 부모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도록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 문항별로 어머니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 하나만을 선택하도록 하여 각 이론적 관점별로 점수를 합산하였다. 가능한 점수 범위는 각 이론적 관점별로 0점에서 28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유아의 발달에 대해 학습이론 또는 성숙주의, 인지발달론적 관점에 기초한 양육신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측정된 본 도구의 신뢰도는 .81이었다.

② 발달과제에 대한 양육신념 척도

어머니의 양육신념 중에서 유아기에 중요시해야 할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을 측정하기 위하여 Okagaki와 Sternberg(1993)의 Parental Belief Questionnaire 중에서 자녀 양육신념 척도(Child-Rearing Beliefs Scales)를 번안, 수정하여 발달과제에 대한 양육신념 척도로 사용하였다. 발달과제에 대한 양육신념 척도는 자녀의 자율성과 순응성을 촉진하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련된 신념을 질문하는 19개 문항의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하위요인으로 크게 자율성 촉진하기와 순응성 촉진하기의 두 가지 차원으로 나뉘는데, 자율성 촉진하기는 문제 해결 기술의 발달 5문항, 창의적 기술의 발달 4문항, 일상적 기술의 발달 6문항으로 구성되며, 순응성 촉진하기는 4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Cronbach α 로 측정된 본 도구의 신뢰도는 .86이었다.

2)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찰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McGillicuddy-De Lisi(1985)와 Renshaw & Gardner(1990)의 부모-자녀간 상호작용 과제를 참고로 하여 본 연구자가 세 가지 과제를 구성하였다.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을 위한 첫 번째 과제는 이야기 과제로서, 신문지 또는 빈 깡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카드 분류하기 과제로서,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그려진 15장의 카드를 부모 또는 유아가 제시한 범주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도형 맞추기로, 다양한 색이 칠해진 도형 조각으로 두 가지 모양(비행기와 자유과제)을 완성하는 것이다. 본 과제는 연구자가 유아의 가정을 방문하여 유아와 어머니가 주로 놀이하는 장소에 비디오를 설치하고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선행 연구(Renshaw & Gardner, 1990)의 유아-어머니 상호작용 관찰 기준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예비조사를 거쳐 18항목의 관찰척도를 구성하였다. 본 관찰 척도는 정서적 지지 6항목, 자율성 존중 6항목, 적절한 지도 6항목 등 총 18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정서적 지지는 긍정적인 관심과 정서적 지지를 언어나 행동으로 표현하며 격려와 관심, 온정을 보이는 것이다. 자율성 존중은 어머니가 유아의 수행에 끼어들거나 방해하면서 어머니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의 수행이나 동기, 관점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행동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적절한 지도는 과제 수행이 성공하도록 어머니의 주장과 생각을 유아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하고, 유아의 수준에 적절한 지시를 전달하는 것이다. 본 척도의 항목들은 어머니가 사용하는 양육행동과 항목의 내용이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관찰자가 5점으로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각 하위범주별로 가능한 점수범위는 6점에서 30점이며, 척도 전체에 대해서는 18점에서 90점이다. 각 범주별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가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해당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본 관찰도구의 신뢰도는 두 분석자가 연구대상이 아닌 10쌍의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녹화된 비디오 자료를 근거로 작성한 기록용지의 항목별 평정점수에 대한 적률상관계수로 산정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 관찰에 대해 산출된 2인의 관찰자간 신뢰도는 전체 18항목에 대해 $r=.93$ 이었으며, 하위범주별로 정서적 지지는 .91, 자율성 존중은 .88이었고, 적절한 지도는 .90이었다. 관찰자내 신뢰도는 관찰 항목 전체에 대해 .91이었고, 하위요인별로 .91, .90, .92이었다.

3. 연구절차

예비조사는 어머니의 양육신념 척도 문항의 적합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유아교사 2인과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 10명에게 의뢰하여 문항에 대한 이해 정도와 형식의 적절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내용과약이 용이하지 않다고 지적된 일부 문항의 문장 표현을 수정하거나 일부 문항을

삭제하였다. 수정된 양육신념 척도를 유아교육 및 아동학 전문가 3인에게 의뢰하여 척도에 대한 안면타당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 과제 절차와 양육행동 관찰 척도의 적절성을 알아보기 위해 4-5세 유아와 어머니 10쌍을 대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과제를 실시하고 비디오 녹화를 하였다. 비디오로 녹화된 어머니 10명의 양육행동을 관찰하여 평정을 실시해 본 결과, 다른 항목과 의미가 유사하여가 관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일부 항목을 제외하여 30항목을 18항목으로 재구성하였다.

본 조사는 서울과 경기도에 위치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4-5세 유아와 어머니 140쌍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대한 질문지는 기관의 담임교사를 통하여 가정으로 배부하고 1주일 후 담임 교사를 통해 수거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가정을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한 후, 적절한 장소에 비디오를 설치하고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 과제를 실시하는 과정을 녹화하였다. 녹화된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 과제에서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보면서 2인의 관찰자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관찰 평정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에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중류층이 아니거나 질문지에 대한 어머니의 응답이 누락된 경우는 제외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분석에는 어머니-유아 113쌍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측정변인들의 일반적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등 기술적 통계치를 산출하였다. 어머니의 신념의 각 하위범주별 차이와 인구론적 특성에 따른 신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test와 paired-t-test,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신념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어머니의 양육신념

1) 어머니 신념의 일반적인 경향

어머니가 4-5세 유아를 양육하면서 발달에 관련된 이론적 관점과 유아기에 필요한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은 어떠

한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45세 유아를 기르면서 발달의 본질에 대해 어떠한 이론에 기초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인지발달론적 관점은 평균 14.0점, 학습이론적 관점은 7.5점, 성숙주의적 관점은 6.5점으로, 어머니들은 주로 인지발달이론에 기초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관점별 점수 차이에 대한 paired-t 검증 결과, 성숙주의적 관점과 인지발달론적 관점 사이($t=12.371, p<.001$)와 인지발달 이론적 관점과 학습이론적 관점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t=8.83, p<.001$). 따라서 45세 유아의 어머니들은 자녀를 양육할 때 성숙주의적 관점이나 학습이론적 관점에 기초하기 보다는 주로 인지발달론적 관점에 기초한 양육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어머니가 45세 유아를 양육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을 문항별 평균을 산출하여 비교해보면, 어머니의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 점수는 6점 척도에서 3.9에서 4.8점 사이에 분포하였다.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때, 자율성을 촉진하는 양육행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문항별 평균점수는 4.6점으로서 '보통 정도'에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고, 순응성을 촉진하는 양육행동을 중요하게 여기는 정도의 문항별 평균점수는 3.9점으로서 '약간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촉진하기의 하위 범주에서는 창의적 기술의 발달이 문항별 평균 4.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어머니들이 자녀의 창의성을 발달시키는 양육행동을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은 4.4점으로 어머니들이 유아의 문제해결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에 대해 '보통 정도 중요하게 생각함'을 알 수 있으며, 일상적 기술의 발달은 4.5점으로 '보통 정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율성 촉진하기와 순응성 촉진하기의 문항별 평균 점수에 대한 paired-t 검증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t=11.95, p<.001$) 어머니들은

45세 유아를 양육할 때 자녀가 순응적 행동보다는 문제해결 기술이나 창의적 기술, 일상적 기술 등의 자율성을 발달시키도록 지도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

2) 인구론적 특성에 따른 양육신념의 차이

유아의 성과 인구론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첫째, 유아의 성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신념의 차이는 발달의 본질에 대한 신념에서 성숙주의적 관점과 학습이론적 관점은 남아의 어머니가 높은 경향이 있었고 인지발달론적 관점은 여아의 어머니가 높은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다.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은 남아의 어머니가 창의적 기술의 발달을 포함한 자율성 발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고, 여아의 어머니는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이나 일상적 기술의 발달 및 순응성을 촉진하는 것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자녀의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둘째,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라 양육신념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본 결과, 대졸이상의 어머니의 경우 대졸미만의 어머니들보다 상대적으로 학습이론적 관점의 점수가 유의미하게 높았다($t=-2.6, p<.05$).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에서는 어머니가 대졸이상인 경우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을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t=-2.00, p<.05$), 순응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다($t=-4.0, p<.001$). 즉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발달을 위해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자극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자녀의 자율성을 발달시키기에 있어서 스스로 주어진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며, 주어진 규칙에 따르고 행동을 조절하도록 가르치는 것을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양육신념의 차이는

<표 1> 양육신념의 평균과 표준편차

(N= 113)

어머니의 양육신념		M(SD)	문항별 M(SD)
발달의 본질에 대한 신념	성숙주의적 관점	6.50(3.07)	
	학습이론적 관점	7.51(3.99)	
	인지발달론적 관점	13.99(4.39)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	자율성 촉진하기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	4.42(.62)
		창의적 기술의 발달	4.83(.67)
		일상적 기술의 발달	4.45(.60)
		합계	4.55(.54)
	순응성 촉진하기	3.89(.71)	

<표 2>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어머니 신념의 차이

(N= 113)

어머니의 신념		대졸미만 (n=40)	대졸이상 (n=73)	t	
		m(sd)	m(sd)		
발달의 본질에 대한 신념	성숙주의적 관점	6.84(3.09)	5.88(2.99)	1.60	
	학습이론적 관점	6.82(3.96)	8.78(3.75)	-2.55*	
	인지발달론적 관점	14.34(4.43)	13.35(4.30)	1.15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	자율성 촉진하기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	21.67(3.22)	22.88(2.74)	-2.00*
		창의적 기술의 발달	19.11(2.54)	19.64(2.90)	-1.00
		일상적 기술의 발달	26.38(3.68)	27.30(3.42)	-1.31
		합계	67.24(8.42)	70.11(7.18)	-1.78
	순응성 촉진하기	14.79(2.52)	16.90(2.92)	-3.97***	

*p<.05, *** p<.001

<표 3>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른 어머니 신념의 차이

(N= 113)

어머니의 신념		비취업모 (n=65)	취업모 (n=48)	t	
		m(sd)	m(sd)		
발달의 본질에 대한 신념	성숙주의적 관점	6.17(2.67)	6.94(3.53)	-1.32	
	학습이론적 관점	8.08(4.34)	6.75(3.34)	1.77	
	인지발달론적 관점	13.77(4.67)	14.29(4.01)	-.62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	자율성 촉진하기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	22.22(3.02)	21.94(3.23)	.47
		창의적 기술의 발달	19.27(2.69)	19.34(2.67)	-.15
		일상적 기술의 발달	26.67(3.70)	26.75(3.50)	-.11
		합계	68.31(7.94)	68.17(8.36)	.08
	순응성 촉진하기	15.57(2.62)	15.49(3.14)	.15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체로 비취업모의 경우 취업모보다 발달의 본질에 대한 신념 중에서 학습이론적 관점의 점수가 다소 높았고,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 중에서는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자녀의 순응성을 촉진하는 양육을 중시하였으나,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넷째, <표 4>에서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어머니 신념을 비교한 결과, 발달의 본질에 대한 신념 중에서 학습이론

<표 4> 가정의 월수입에 따른 어머니 신념의 차이

(N= 113)

어머니의 신념		300만원이하 (n=43)	301-400만원 (n=29)	401만원이상 (n=38)	F	
		m(sd)	m(sd)	m(sd)		
발달의 본질에 대한 신념	성숙주의적 관점	6.40(2.94)	6.97(3.01)	6.42(3.36)	.35	
	학습이론적 관점	8.95(4.46) ^a	6.93(3.90)	6.37(2.98) ^a	5.01**	
	인지발달론적 관점	12.65(4.11) ^a	14.07(4.29)	15.24(4.43) ^a	3.72*	
발달 과제에 대한 신념	자율성 촉진하기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	22.37(2.70)	21.34(2.70)	22.21(3.60)	1.07
		창의적 기술의 발달	19.55(2.52)	18.93(2.33)	19.43(3.12)	.48
		일상적 기술의 발달	27.05(3.82)	26.48(3.55)	26.42(3.58)	.35
		합계	69.12(7.98)	66.83(7.16)	68.32(9.18)	.68
	순응성 촉진하기	16.12(2.53)	14.76(2.60)	15.43(3.35)	2.00	

*p<.05, ** p<.01

a는 scheffe 검증결과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 집단임.

적 관점($F=5.0, p<.01$)과 인지발달론적 관점($F=3.7,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가정의 월수입이 평균 이하인 어머니들은 평균 이상인 어머니들보다 학습이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유아의 발달이 환경에 의해 조성된다고 생각하고 유아를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다소 높았다. 반면에 가정의 월수입이 평균이상인 어머니들은 상대적으로 유아를 발달에 있어서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유아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한다는 인지발달론적 관점에서 발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다.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은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한편,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월수입에 따라 어머니의 발달의 본질에 대한 신념 중 학습이론적 관점의 신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으로 이원변량분석을 통해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았다. 어머니의 교육수준과 가정의 월수입이 어머니의 학습이론적 관점의 신념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였는데($F=7.61, p<.001$), 두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2.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에 앞서 어머니의 양육행동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면 <표 5>과 같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유아-어머니간의 문제해결 과제에서 나타나는 어머니의 상호작용 행동을 비디오로 녹화하여 관찰·평정한 결과, 어머니의 양육행동 총점의 점수범위는 46-78점이었고 평균은 63.9점이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정서적 지지와 자율성 존중, 적절한 지도의 각 문항별 평균은 5점 평정에서 3.6점, 3.6점, 3.4점으로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보통 정도'에서 '약간 그렇다'의 사이로 관찰되었다.

<표 5>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평균과 표준편차

(N= 113)

어머니의 양육행동	가능한 점수범위	점수범위	M(SD)
정서적 지지	6-30	15-27	21.46(2.12)
자율성 존중	6-30	13-28	21.81(3.02)
적절한 지도	6-30	14-26	20.59(2.61)
총점	18-90	46-78	63.87(6.57)

다음으로,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과의 Pearson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발달의 본질에 대한 신념 중 인지발달론적 관점은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r=.49$), 자율성 존중(.36), 적절한 지도(.43) 및 양육행동 총점(.52)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 중에서 자율성 촉진하기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모든 하위요인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으며, 자율성 촉진하기 중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은 양육행동의 정서적 지지(.21) 및 적절한 지도(.25)와 관계가 유의했고, 창의적 기술의 발달은 정서적 지지(.32) 및 자율성 존중(.25)과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그리고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 중에서 순응성 촉진하기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적절한 지도(-.19)와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어머니가 유아의 발달에 대해 인지발달론적 관점을 가질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으로 유아를 지지해주고, 유아가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자율성을 존중해주며, 문제해결에 필요한 적절한 지도를 제공해주는 경향이 높았다. 또한 어머니가 유아의 자율성을 신장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어머니-유아의 상호작용에서 유아를 수용하고 인정하는 등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유아의 자율적인 과제해결을 존중하며 유아의 발달수준과 요구에 적절한 지도방식을 사용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였다. 특히 어머니가 자녀의 자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문제해결 기

<표 6>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과의 상관계수

(N= 113)

어머니의 양육신념		어머니의 양육행동	정서적 지지	자율성 존중	적절한 지도	양육행동 총점
발달의 본질에 대한 신념	성숙주의적 관점		-.08	.08	.14	.07
	학습이론적 관점		.03	-.10	-.09	-.07
	인지발달론적 관점		.49**	.36**	.43**	.52**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	자율성 촉진하기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	.21*	.18	.25*	.21*
		창의적 기술의 발달	.32**	.25*	-.07	.19
		일상적 기술의 발달	.17	.12	.10	.09
		합계	.35**	.21*	.22*	.20*
	순응성 촉진하기		-.01	-.06	-.19*	-.10

* $p<.05$, ** $p<.01$

술을 발달시키는 것을 중시할수록 상호작용에서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제공해주는 경향이 있었으며, 어머니가 유아의 창의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질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 인정과 수용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자율성을 존중하는 양육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아의 발달과제에 대해 순응성을 촉진하는 양육을 중시할수록 실제 상호작용에서는 유아의 발달수준이나 요구에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이론적 관점과 유아기의 발달과제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은 어떠한가, 이러한 신념이 유아와 어머니의 인구론적 변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밝히고, 유아와의 상호작용 상황에서 관찰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신념간의 관계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5세 유아의 어머니들은 발달의 본질에 대해 대부분 인지발달론적 관점에 기초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다. 즉, 어머니들은 유아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으로 발달하는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4-5세 유아의 어머니들이 인지발달에 목적을 둔 아동 중심 수준을 가장 많이 갖고 있었다는 이희선(1995)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주로 중류층임을 고려해보면,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자녀 양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최신 유아교육 경향과 발달이론 및 심리학에 관련된 정보를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바람직한 자녀양육에 대한 신념을 나름대로 구성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따라서 이들이 주로 인지발달론적 관점에서 자녀의 발달적 본질을 이해하고 있음은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어머니들은 4-5세 유아를 양육하면서 순응성을 촉진시키는 것보다 문제해결 기술이나 창의적 기술, 일상적 기술을 발달시킴으로써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한 발달적 과제라고 보고하였다. 즉 어머니들은 유아가 수동적으로 외적인 권위에 따르기보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창의적 사고를 하며 일상적 기술을 습득하도록 양육함으로써 자율성을 발달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5세를 대상으로 동조성과 독립성에 대한 어머니의 신념을 조사한 권주원(2002)

의 연구와 미국인 부모 집단과 이민자 부모의 집단의 신념을 비교한 Okagaki와 Sternberg(1993)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만 5세 유아를 가진 한국 어머니와 미국 어머니의 신념을 비교한 김희진(1995)의 결과와는 다소 불일치한 것이다. 김희진(1995)의 연구에서 미국 어머니들은 자녀가 생각과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중시하는 반면, 한국 어머니들은 순종을 강조하고 독립심을 격려하며 조기훈련을 중시한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 보고된 한국 어머니들이 순종과 독립심을 함께 중시하는 것은 다소 모순된 가치관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우리 사회의 가치와 문화가 서구 사회의 그것과 비슷하게 독립적이고 성취 지향적이며 자율적인 사고와 행동 양식을 중시함을 생각해보면,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신념에도 반영되었으리라 추측된다.

둘째, 인구론적 특성에 따라 어머니의 신념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본 결과, 우선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양육신념은 유아의 성에 따라 차이가 없었다. 즉 연구대상 어머니들은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인지발달론적 관점을 가장 많이 지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4-5세 유아의 발달과제에 대해서도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어머니들은 유아들에게 순응성보다는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의 성별이 부모가 자녀에게 갖는 기대와 목표와 관련된다라는 일부 선행연구(Luster & Okagaki, 1993)의 결과와 불일치하지만,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신념에 차이가 없고 아들이나 딸을 똑같이 대한다는 연구결과(고을희, 2001; Goodnow et al., 1984; McGillicuddy-DeLisi, 1985)와 유사하다. 본 연구대상의 어머니들은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한 관념보다는 양성성을 중시하는 현대적 성역할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녀의 성별에 따라 양육신념에도 차이가 없었다고 보인다. 특히 본 연구대상 유아들은 외동아이거나 자녀수가 둘 이하인 자녀수가 적은 가정에서 속해 있고, 어머니들은 아들과 딸을 구별하지 않고 양육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자녀의 성에 따라 양육신념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경우 대졸 미만인 어머니들보다 발달의 본질에 있어서 인지발달론적 관점을 중시하는 정도나 성숙주의적 관점을 지지하는 정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학습이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4-5세 유아의 문제해결 능력을 발달시킴으로써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자녀의 순응성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자녀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Siegel(1985)의 주장과 일치하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 자녀의 문제해결 능력의 발달과 사회적 적응능력의 발달을 강조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경혜, 1993; Okagaki & Sternberg, 1993)와도 일치한다. 그리고 본 연구의 결과는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은 낮은 어머니들보다 인지적 과제를 가르치려할 때 아동에게 개방적 질문이나 제안을 통해 아동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하는 상호작용을 더 선호한다는 이희선(1995)의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은 경우에 학습이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정도가 높고 자녀의 순응성 발달을 중시한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였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의 경우 인지발달론적 관점을 중시하고 있는 것은 자연스런 결과로 보이나,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교육수준이 낮은 어머니들보다 학습이론적 관점을 상대적으로 중시하고 자녀의 순응성을 발달시키고자 양육한다는 신념은 의외의 결과였다. 이는 대졸이상의 어머니들이 자녀에 대한 교육적인 기대와 성취에 대한 열망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녀를 부모의 기대대로 '만들어'가고자하는 욕구가 내면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어머니들이 학습을 위한 환경 조성과 자녀에 대한 직접적 지도 및 관리 감독의 중요성에 대한 신념이 강하기 때문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취업 유무에 따라 발달의 본질에 대한 신념과 유아기의 발달과제에 대한 신념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직업이 부모의 일반적인 안녕에 영향을 줌으로써 부모가 자녀에 대해 갖는 사고와 태도에 영향을 준다는 Luster와 Okagaki(1993)의 주장과 비교해 볼 때 이러한 결과는 다소 불일치한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45세 유아의 어머니임을 고려해보면, 아직 자녀의 연령이 어리기 때문에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자녀에 대한 독립성이나 자율성을 중시하는 신념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되며, 특히 발달에 대한 이론적 관점에 있어서 취업모와 비취업모의 신념이 단순히 취업유무보다는 다른 요인들의 복합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발달의 본질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 가정의 월수입이 평균이하인 경우 학습이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경향이 월수입이 평균이상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반대로 가정의 월수입이 평균이상인 경우 인지발달론적 관점을 지지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부모의 신념에 차이가 난다는 Kohn(1969)의 주장에 비추어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정의 월수입이 평균이하인 경우 자녀의 성취를 위해 어머니의 개입이나 지도가 지지적이고 권위적인 방법으로 관여되는 학습이론적 관점을 지지

하는 것은 유아의 능동적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어머니의 신념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가 발달의 본질에 대해 인지발달론적 관점의 신념을 가질수록, 유아의 발달과제에 대해 자율성을 촉진시키는 양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45세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정서적으로 유아를 지지해주고 자녀의 자율적인 문제해결을 존중해주며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절한 지도방법을 사용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 중에서도 어머니가 유아의 자율성을 키우기 위해 문제해결 기술의 발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할수록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제공해주는 상호작용 행동을 보였고, 어머니가 유아의 창의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가질수록 상호작용에서 인정과 수용을 보이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존중해주는 양육행동을 많이 사용하였다. 그리고 어머니가 유아의 순응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제라고 생각할수록 자녀와의 상호작용에서는 유아의 발달수준이나 요구에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본 결과는 부모의 양육목표와 가치, 신념은 부모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Darling & Steinberg, 1993), 신념은 부모 행동의 근원이며 부모의 양육행동이 양육신념과 아동의 발달 간을 조정하는 중재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주장(McGillicuddy-DeLisi, 1985)에 비추어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들은 '피아제 방식의 아동'을 강조하는 심리학의 흐름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지식을 구성함에 있어서 아동을 능동적 존재로 보고, 자녀에게 현재 직면한 사건이나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의 경험과 사건을 떠올려 현재 상황에 적용하게 하며, 예측을 통해 지식을 재구성하도록 하는 개방적인 질문을 사용하고 자녀와의 대화에서 생각할 시간을 주기 위해 간격을 두고 언어적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Bronfenbrenner, 1992). 본 연구에서 인지발달론적 관점의 신념을 가진 어머니들은 자녀를 발달에 있어서 능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고 환경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가 인지발달을 이룬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높았고 유아의 자율성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한 발달과제라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러한 신념이 실제 유아와의 상호작용에서 유아가 스스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용하거나 유아의 수행에 대해 인정하고 격려해주며 도움이 필요할 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는 양육행동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어머니가 유아의 순응성을 촉진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는 경우에는 발달수준에 적절한 지도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데, 이것은 이희선(1995)의 연구에서 부

모가 부모역할 중심이나 부모중심의 신념수준을 가진 것은 결국 성인중심의 양육신념을 가지고 있어서 일상적인 문제 갈등 상황에서 어머니들은 대부분 '가르친다, 배우게 한다, 생각하게 한다'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언어적 상호작용의 이유를 사용하여 설명한다는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유아기에 적절한 바람직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자율성을 발달시키기 위해 일상적인 문제해결 상황에서 유아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와 경험을 제공하여 자율적으로 통제하고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본다면, 자녀의 순응성을 촉진하는 것을 주요 발달과제라고 인식하는 어머니의 신념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유아의 발달수준에 적합한 도움이나 지도의 양육행동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추후 연구를 위하여 몇 가지 제한점을 제시하고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상관관계에 기초한 횡단적 연구이므로, 본 연구에서 얻어진 4-5세 유아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양육행동의 관계가 중단적 인과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자녀의 발달시기별로 부모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발달과제와 발달의 본질에 대한 양육신념을 중단적으로 파악하고, 자녀의 발달시기별로 부모가 사용하는 양육행동과의 관계를 조사하면 매우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에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상으로 어머니에 한정하여 양육신념과 행동을 조사하였다. 그러나, 최근 자녀 양육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감안하여 후속 연구에서는 어머니 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신념과 양육행동을 포함하여 이들 변인이 자녀의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 중 상호작용 과제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관찰된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다각적으로 조사하면 보완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어머니의 신념을 질문지를 사용하여 조사하였지만, 면접을 통해서 부모가 지닌 발달이나 양육에 관한 신념을 심층적으로 알아보면 더 신뢰로운 연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발달에 관한 이론적 관점과 유아기에 요구되는 발달과제에 관한 신념을 중심으로 어머니의 양육신념을 다각적으로 파악하고 인구론적 변인에 따라 그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부모의 신념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였고, 질문지를 사용하여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조사하기보다는 실제 가정환경에서 유아와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어머니와 유아간의 행동패턴을 파악하고 어머니의 신념과 양육행동의 관계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발달에 관하여 최신 심리학의 흐름을 잘 알고 이를 자녀 양육에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여전히 자녀를 부모에 의해 기대되어지고 만들어지는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도 일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유아교육기관에서 부모교육을 실시할 때 유아의 발달적 능동성과 유아기의 발달과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부모에게 제공하고 이를 위해 부모가 어떠한 양육행동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도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주제어 : 양육신념, 양육행동, 어머니, 유아

참 고 문 헌

- 계몽아동연구소 (1988). *오늘의 부모 무엇이 문제인가*. 서울: 계몽사.
- 고을희 (2001). *자녀의 성, 어머니의 취업여부,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른 양육신념과 양육행동*.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권주원 (2002). *어머니의 자녀에 대한 신념과 아동의 창의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혜 (1993). *자녀의 지적 특성, 양육, 교육에 대한 부모의 신념*.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진 (1995). *자녀양육에 대한 한국과 미국 어머니들의 신념 비교 연구*. 유아교육연구, 15(2), 5-22.
- 안지영, 박성연 (2002).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학회지, 40(1), 53-68.
- 이원영 (1983). *어머니의 자녀교육관 및 양육태도와 유아발달과의 관련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희선 (1995). *아동과의 상호작용에 대한 부모의 신념*. 아동학회지, 16(1), 65-78.
- 전인옥, 이경옥 (1999). *유아의 자기효능감에 대한 인과모형 탐색: 사회경제적 지위, 어머니의 교육신념과 양육에 대한 자기효능감, 양육행동의 영향을 중심으로*. 유아교육연구, 19(1), 169-187.
- 조혜진 (2001).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유아의 다중지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onfenbrenner, U. (1992). *인간발달생태학*. 이영(역). 서울: 교육과학사.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Goodnow, J. (1988). Parents' ideas, actions, and feelings: Models and methods from developmental and

- social psychology. *Child Development*, 59, 286-320.
- Goodnow, J.J., Cashmore, J., Cotton, S., & Knight, R. (1984). Mothers' developmental timeables in two cultural groups.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19, 193-205.
- Johnson, J.E. & Martin, C. (1985). Parents' Beliefs and home learning environments: Effects on cognitive development. In Sigel, I.E.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25-50). NJ: Erlbaum.
- Jose, P.E., Huntsinger, C.S., Huntsinger, P.R., & Liaw, F.-R. (2000). Parental values and practices relevant to young children's social development in Taiwan and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1(6), 677-702.
- Luster, T. & Okagaki, L. (1996). 부모-자녀관계: 생태학적 접근(박성연 외 역). 서울: 학지사.
- Luster, T., Rhoades, K., & Hass, B. (1989).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values and parenting behavior: A test of the Kohn hypothesis. *J.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 139-147.
- Martin, C.A., & Johnson, J.E. (1992). Children's self-perceptions and mothers' beliefs about development and competence. In I.E. Sigel, A.V. McGillicuddy-De Lisi, & J.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nd ed.) (pp. 95-113).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McGillicuddy-De Lisi, A.V.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cognitive level. In Sigel, I.E.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7-24). New Jersey: Erlbaum.
- McGillicuddy-De Lisi, A.V., & Subramanian, S. (1994). Tanzanian and United States mothers' beliefs about parents' and teachers' roles in children's knowledge acquisi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7(2), 209-237.
- Miller, S.A. (1988). Parents beliefs about children's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59(2), 259-285.
- Okagaki, L. & Sternberg, R.J. (1993). Parental beliefs and children's school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4, 36-56.
- Renshaw, & Gardner (1990). Process versus product task interpretation and parental teaching practic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3(4), 489-505.
- Rubin, K.H. & Mills, R.S.L. (1992). Parents thoughts about children's socially adaptive and maladaptive behaviors: Stability, change,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I.E. Sigel, A.V. McGillicuddy-De Lisi, & J.J. Goodnow (Eds.),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2nd ed.) (pp. 41-69).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ameroff, A.J., & Feil, L.A. (1985). Parental concepts of development. In I.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83-105). NJ: Erlbaum.
- Schaefer, E. & Edgerton, M. (1985). Parent and child correlates of parental modernity. In I.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The Psychological Consequences for Children* (pp. 287-318).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igel, I.E. (1981). "Social experiences in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onal thought: Distancing theory" In I.E. Sigel, D. Brodzinsky, & R. Golinkoff (Eds.), *New directions in Piagetian theory and practic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Sigel, I.E. (1985). A conceptual analysis of beliefs. In I.E. Sigel (Ed.), *Parental belief systems* (pp. 345-371). Hillsdale, NJ: Erlbaum.

(2008. 8. 27 접수; 2009. 4. 1 채택)